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승산 스님 '선의 나침반' 재출간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이라는 가르침으로 많은 법안(佛眼)출가자를 배출한 승산 스님(1927~2004)의 30여 년간 설법을 집대성한 책 <선의 나침반>이 10년 만에 재출간됐다.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를 통해 스승인 승산 스님과의 인연, 깨달음의 과정을 보여줬던 현각 스님은 4년여에 걸쳐 승산 스님이 설법한 녹음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를 녹취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선의 나침반>을 완성했다.

승산 스님은 1966년 일본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브라질, 프랑스, 남아공, 싱가포르 등 전 세계를 누비며 해외포교에 앞장 섰다. 스님은 서구의 합리적 사고방식과 불교에 낮은 서양인들의 관점에 맞춰 다양한 일화와 쉬운 어휘를 사용해 법문을 했다. 불교 공부가 어려운 한자로 가득한 경전 공부가 아니라, 참선 수행이라는 마음공부를 통해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길잡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이자 세계적 수행가인 존 카밧 진은 "승산 스님의 가르침은 서구인들의 지성과 관념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 한 편의 명사처럼 추상적 이미지를 일단 무턱대고 삼키고 나면 그 이미지들이 내면에서 한 폭의 그림으로 완성되듯이, 확실히이고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새로운 자원의 세상을 열어 주었다"고 회고한다.

<선의 나침반>은 참마를 깨닫고 증생을 교화하는 불교의 목적에서부터 소승·대승불교, 선불교로 이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쉽고 재밌게 그러나 핵심을 관통하는 승산 스님의 말씀은 연기법,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행 등 불교교리의 핵심 가르침을 설명하고 <금강경><대발원경><법화경><화엄경> 등 경전에 담긴 불법의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따뜻하고 자애로우면서도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승산 스님의 유머러스하고 과격적인 법문은 딱딱한 불교가 아닌, 재밌고 쉬운 불교로 우리를 안내한다.

선의 나침반 | 현각 엮음 | 김영사 | 1만8000원

이어나 기자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

웰다잉 선구자 오진탁 교수의 '삶, 죽음에게 길을 묻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죽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언가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열일곱 살 때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라는 글을 읽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죽음은 삶을 변화시킨다. 여러분의 삶에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애플 컴퓨터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몇 년 전 불치병 선고 받았지만, 운 좋게 치료 가능한 폐암으로 밝혀져 다시 회사로 돌아온 뒤 그가 얻은 교훈일테다.

이렇듯 생사를 넘나드는 병고를 치른 뒤에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들이 있는 반면, 개인·경제·사회적 이유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다.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한류스타의 사연이 그러하다.

한국은 이미 2006년부터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자살 선진국'이라 불릴만한 우리 사회의 자살은 초등학교생부터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계층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30여 년 전부터 '죽음준비교육' 과목을 개설해 일반인들에게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997년 한 대학 내 최초로 과목을 개설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야 죽음준비교육이 종교단체, 복지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입관체질 등의 행사 위주라면 진행돼 죽음준비교육이 하나의 이벤트나 퍼포먼스로 전락한 실정이다.

죽음을 터부시하는 국내의 정서적 문제로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죽음을 금기시 하다 못해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림대 생사학연구소장인 저자 오진탁 교수는 <삶, 죽음에게 길을 묻다>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생사학 전문가의 부재가 결국 웰다잉(well-dying)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자살문제와 웰다잉 교육을 못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책의 1부에서 우리 사회에 죽음이해가 크게 부족함을 지적하며 육체적·불교적·티베트·기독교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다.

2·3부에는 자살예방과 웰다잉 교육 성과들을 생생한 사례와 함께 실었다. 자살한다고 해서 당사자가 직면한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결코 도피할 수 없고,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죽을 이후에 끔찍한 고통만 가중되고, 그가 사랑했던 남은 사람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로 임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해준다.

오진탁 교수는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하지도 않은 채 미봉책에 불과한 위기개입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자살예방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며 "우리 사회의 자살률, 자살충동률, 불행한 임종모습 등을 감안했을 때, 이제 '웰다잉과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운동'을 통해 바람직한 죽음이해와 성숙한 임종방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삶, 죽음에게 길을 묻다 | 오진탁 지음 | 종이거울 펌 | 1만2000원

이어나 기자 bohyung@buddhapia.com

아는 만큼 보이는 만큼 사찰탐방의 모든 것 '절집 길라잡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찰을 찾을 때 사찰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왜 그런 모양·구도로 자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진 않았을 것이다.

<절집 길라잡이>는 우리나라 사찰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외형적인 것들을 대부분 정리하고 절집의 경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절집을 떠나올 때까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 친절히 소개한다.

일주문부터 산신각까지 사찰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건축물과 불상, 그림, 조각 등 시각적 요소들에 대해 꼼꼼하게 구석구석 설명해 주고 있다.

<절집 길라잡이>는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가이드북처럼 평이하고 간략한 설명으로 구성됐으며 때로는 글보다 많은 다양한 사진을 곁들여 이 책 권권만 들고 사찰탐방에 나서도 충분하다.

대학에서 한국사와 불교문화학을 강의하고 있는 저자 김영숙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아는 게 쌓이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절집을 돌아다녀도, 그 의미에 대해 모르고 다닌다면 종교적 신앙심이든 교양이든 남는게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절집 길라잡이 | 김영숙 지음 | 운주사 펌 | 1만 3000원

이어나 기자

유·불·도의 정수 '채근담' 칼럼니스트 이병두 해설서 펴내



동서고금의 문명과 종교·사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는 책들이 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와 동아시아에서 널리 읽힌 유교·불교와 노자의 여러 경전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도 <채근담>은 유교·불교·도교의 정수를 가려서 뽑은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고 있다.

<채근담>은 중국 명나라 말기의 홍응명이 엮은 것이다. 채근(槩根)은 '나뭇뿌리의 맛'이란 뜻으로, 중국 송대의 학자 왕신민의 '사람이 항상 나뭇뿌리라도 그것을 달게 씹어 먹을 수 있는 참음성과 기개가 있다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일이라도 못다해 낼 것이 없어 가히 100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불교평론> 편집위원이자 칼럼니스트인 이병두는 2년간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채근담>으로 마음을 다스렸고 자신만의 해설을 덧붙여 <지혜로운 삶의 교훈 채근담>을 냈다.

책의 1장 수성(修身)편에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2장 응수(應酬)편은 모든 사물과 접촉해 일어나는 일들을 관촬하고 느끼며 삶을 살아가는데 지침이 될 수 있는 명구들을 담고 있다. 3장 평의(評議)편은 행동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잘못들을 느껴 깨우치고 반성하도록 하는 가르침을, 4장 한적(閑寂)편에서는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의 글들로 채워졌다.

채근담 | 이병두 풀이 | 참글세상 펌 | 1만원

이어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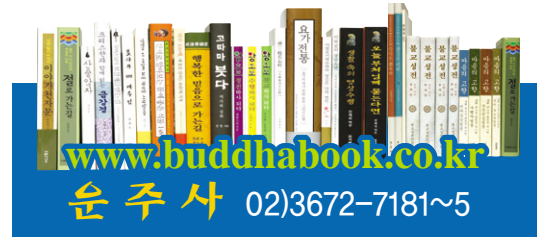
오진탁 교수가 제안하는 웰다잉·자살예방 위한 사회 운동

1. WHO의 기준에 따라 죽음을 육체적, 사회적 관점(의학적, 법률적 죽음이 해)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관점(생사학, 종교의 죽음 이해)에서도 접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널리 알린다.
2. 죽음준비교육을 학교와 사회 교육으로 실시, 특히 의과대학에 웰다잉 교육 과목 개설
3. 죽음과 자살에 대한 바른 이해를 중심으로 자살예방교육 실시. 10~20대 층에 집중적으로 자살예방교육 실시: 초·중등학교와 대학생, 군부대 병사와 전투경찰
4. 교사, 군 장교, 사회복지사, 심리상담가,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직무연수 교육을 통해 웰다잉과 자살예방 전문가로 양성
5. 호스피스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6. 존엄사 법제화 이전에 연명치료 중단 대상과 절차를 분명히 제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엄격한 존엄사 가이드라인 확정
7. 사전의료지시서 표준양식을 확정해 보급
8. 죽음 준비와 유서 쓰기의 생활화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법륜	정토
2	젊은 날의 깨달음	해인	클리어마인드
3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4	미산스님 초기경전 강의	미산	명진출판
5	선의 나침반	현각	김영사
6	다름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법성	운주사
7	누구 없는가?	법진	김영사
8	붓다 석가모니	법정	문학의 숲
9	붓다의 세계와 불교 우주관	이사무	민족사
10	지리산 스님들의 못 말리는 행복 이야기	찬진/현현	불광출판사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2500년간 정법의 기근(饑饉)에 단비를 내린다 불교 총서(叢書)의 새로운 지평 영산불교에서 간행된 주옥의 불서(佛書)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16쇄 | 371면 | 25,000원, 385면 | 25,000원

대형서점 종교서적 부문 6개월 연속 베스트 1위!

30년간 지열한 열불수행을 통해 깊은 삼매 속에서 만난 나의 스승 석가모니부처님! 아난이 2600년을 지나 부처님을 친견하고 그 법문을 들어 온전한 불법을 다시 세우 전하는 진실한 이야기.

"깨달음(견성)은 진정한 삼매를 위한 수행에 있어 시작이었을 뿐이었다. 진정한 삼매, 대적점삼매에 들었을 때 비로소 등골 오싹하도록 무서운 지옥이 진실로 있음을 알게 되었고 하는 세계와 해탈 세계인 극락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보았다. 수행 중에 보는 지옥과 극락은 모두 환영이지만 오직 붓다의 경지에서만은 지옥과 극락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3신을 구족하지 못한다면 붓다라고 할 수 없다."

붓다를 이룬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 사후 세계와 윤회 대상인 욕도의 실질적 모습을 밝힌 전대미문의 대서서.

영혼체 윤회론

158면 | 10,000원

깊고 깊은 미개척의 영적 세계, 비밀의 장에서 건네온 우리 자신의 비밀. 내인의 '진실한 나'를 찾았다!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보화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진실하고 깊은 법문 진짜 나인 '영혼체'의 정체를 알아야 욕도여행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2000년 넘게 왜곡되어 해석된 무아설(無我說)을 바로잡고 삼법인(三法印)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이 시대 최고의 논서.

4개의 겹으로 이루어진 영혼체의 내면을 해부하고 욕도를 윤회하는 나는 3번째 층이 드러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진정한 불법의 진수를 드러내어 환두교의 아트만 사상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오랜 비밀이었던 영혼체설을 정립한다.



4월 초파일 10만 2천등 항공사건

영산불교사상과 문묘법연화경 381면 | 25,000원

보장정토와 도강림 다보탑 조성을 기념한 다보예배부처님 기도법 안에서, 경전중의 경전인 보발원경 본문팔공을 적시하며 불세존의 일원일담을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석가모니부처님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다보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

관음태고, 관음태고에서 천도까지 187면 | 10,000원, 311면 | 15,000원

행복한 삶의 시작과 끝을 결정지어 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고의 보서(寶書) 삼백송에서 관음보살님께서 직접 부촉하신 '관음태고법'을 소개한 예비 부모의 팔도서 국가와 가정의 미래를 걱정하는 선남자 선녀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의무가 있다.

붓다의 메시지 존평 506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에 대한 불교 내외의 여러 학자들의 평론.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과 소감을 통해 원문에 대한 이해와 심신을 증장시킨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요해 269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의 사상적 측면만을 별도로 묶은 요약서. 붓다의 메시지를 통해 신심이 증진될 뿐 아니라 요해를 통해 영산불교의 사상을 재검토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척천무후 238면 | 15,000원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 척천무후 그녀를 지금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불세존의 법문을 이은 가섭존자의 후사이자 동시에 현자사 광명만덕 큰스님의 전신! 오늘날 그녀의 사상과 철학을 3명의 연속선 상에서 되짚어 본다.

영산불교의 법체계 80면 | 10,000원

두분 큰스님께서 영산불교를 창종하신 이유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왜 위대한 법왕일 수 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담은 책. 욕도의 실제 모습과 정법법률 수행, 진정한 윤회의 길인 천도법률 설명한다.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489면 | 15,000원

수행적 측면에서 바라본 영산불교의 법체계. 기존 선불교에서 내재하는 깨달음(견성)이 진정한 삼매를 위한 수행의 시작임을 선언하고 수행의 과정과 어려움-보살-붓다로 위계지어짐을 밝힌다.

비교종교학 537면 | 25,000원

이 세상 모든 종교 중에서 나의 종교의 위치는 어디인가? 불교가 제(諸)종교의 중심에 설 수 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를 밝힌다. 영산불교의 법체계를 소개하고 이와 더불어 세계 7대 종교를 되짚어 본다. 영산불교 관련에서 7대 종교의 교주, 경전, 사상을 정리하고 평가해보자.

법문집 I·II·III·IV 631면 | 15,000원, 540면 | 20,000원, 648면 | 20,000원, 726면 | 20,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 부처님의 세계, 욕도윤회의 실상, 수행과 마장, 청명법률수행, 기존 불교의 한계 등이 큰스님의 육성법문에 녹아있고 이를 4권의 책으로 엮었다.

신불교사상의 실체를 파헤친다. 42면 | 소개책자

기존불교계의 핵폭탄 되리나? 종교계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불교 사상의 등장을 전면적으로 소개한다. 기자의 눈으로 보고 들은 자만만한 큰스님의 인터뷰

신불교학개론 217면

영산불교 사상연구소에서 다시 쓰는 불교학 개론서. 근본불교에서부터 밀교와 선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상을 아우르고 허물어진 불법의 뼈대를 다시 세운다.

불교사에 드러난 석가세존의 실존문제연구 217면

금강경, 밀화경, 화엄경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석가모니부처님의 위상과 실존문제를 파고든다.

영산불교사상연구소